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연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 기준 수익성이 금리하락 추세와 병행하여 하락하고 있음.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며 수익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포화로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 수익은 변액연금 및 보험상품, 자산관리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음. 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는 보험회사에게 이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에게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금융위험을 복합적으로 관리하여 장기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은 4.1%로 2015년 5.8%에 비해 1.7%p 하락함.

- 생명보험 종목 가운데 비중이 큰 저축성보험이 감소하였고 대출손실 등 일회성 요인이 작용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6,9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함.¹⁾
- 반면 손해보험의 자본이익률은 11.3%로 2015년 9.6%에 비해 1.7%p 상승함.

〈표 1〉 국고채 5년물 금리와 생명보험 자본이익률

(단위: %)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고채 5년물 금리	4.3	3.9	3.24	3.0	2.84	1.97	1.53
생명보험 ROE	10.4	8.4	7.6	5.5	5.9	5.8	4.1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2. 21), “2016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2021년 보험부채시가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는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보험시장의 시장포화 현상으로 보장성보험 수요는 정체된 것으로 보임.
 - 2016년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음.²⁾

■ 반면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금리 및 시장위험이 적은 수수료 사업 비중이 크며 수수료 수익 가운데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포함됨.

- 1999년에서 2009년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익(Revenue)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의 평균은 10년간 12% 수준임.³⁾
 - 변액연금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수수료, 연금계좌 유지 수수료 이외에도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 수수료 등도 부과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뉴욕라이프, 프린시펄의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13.6%, 17.1%, 12.5%, 30.5%임.
 - 뉴욕라이프의 2015년 수익(Revenue)은 261.3억 달러인데 유니버설보험과 투자형상품 관련 수수료 규모는 14.8억 달러, 투자자문 서비스 수수료는 17.9억 달러임.
 - 프루덴셜의 경우 변액연금 상품 관련 수수료 규모는 59.7억 달러, 자산관리 및 서비스 수수료는 37.7억 달러임.
 - 변액연금, 퇴직연금 사업비중이 큰 프린시펄의 2015년 수익은 119.6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전체 수수료 수익은 36.5억 달러이고 퇴직연금 자산운용서비스, 투자신탁 수수료 수익은 15.6억 달러임.

〈표 2〉 미국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2015년 수수료 수익 비중과 특별계정 자산 비중

(단위: %)

구분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뉴욕라이프	프린시펄
수수료 수익 비중	13.6	17.1	12.5	30.5
특별계정 자산 비중	34.4	37.7	11.9	62.6
자본이익률	7.5	13.3	10.1 ¹⁾	12.5

주: 1) 뉴욕라이프는 상호회사이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이익률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자본이익률을 주식회사의 자본에 상응하는 자본잉여(Surplus, 186억 달러) 대비 영업이익(18억 7,500만 달러) 비율로 추정함.

자료: 각 보험회사 연차보고서.

2) 보험연구원(2016),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참조.

3) Columbia University(2010, 11), “Analysis and Valuation of Insurance Companies”.

■ 영국의 프루덴셜, 독일의 알리안츠 등은 자산운용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

- 영국 프루덴셜은 1980년대 후반 자산운용회사를 인수하면서, 독일 알리안츠는 1990년대 후반 자산운용을 확대하기 시작함.⁴⁾
 - 영국 프루덴셜의 2016년 자산운용사업 비중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13.4%이고 미국 사업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의 74%가 변액연금 관련 수수료 수익임.⁵⁾
 - 독일 알리안츠의 2016년 자산운용사업 비중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3% 수준임.
- 독일 알리안츠의 투자자문(Investment Advisory) 수수료 수익은 87억 유로로 전체 수익의 7.9% 수준임.
 - 알리안츠의 경우 연금수요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자산관리 및 운용 수요 증가를 전망하였고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투자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는 이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⁶⁾
 - 2016년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은 904.9억 원, 신탁보수는 189.8억 원,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수익은 1조 3,137억 원으로 총수익의 0.08%, 0.02%, 1.15% 수준임.
 - 수수료 수익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입한 금액(유가증권 인수 수수료, 주식대여 수수료, 대출 수수료 등)이며 신탁보수는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받는 보수임.
 -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경우 80년대 후반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과 은행 파산을 경험하면서 이자수익 비중을 줄이고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함.⁷⁾
-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의 사망위험(기대수명 연장)과 투자위험을 복합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다각화 검토가 필요함. **kiRi**

4) 전용식·조영현(2016),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주요 해외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5) 영국 프루덴셜의 미국 사업비중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48%임.

6) 전용식 외(2014),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KiRi 리포트』, 제312호, 보험연구원.

7) 1991년 미국 상업은행의 총대출 대비 상각액 비율은 1.6%로 2008년 1.3%에 비해 높았고 1985년에서 1992년 기간에 1,632개 은행이 파산함.